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가정준 프란치스코, 홍진국 클레멘스
 부활 전야미사독서: 정나미 모니카, 이진숙 수산나,
 이재니수 로사
 부활미사 독서: 고성호 요한, 박현성 세라피나
 금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부활전야 미사 복사: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부활 미사 복사:신승원 로이,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금주 미사해설: 윤보연 소화 데레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다음주(부활전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부활)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희 베르나르도
 친교실 정리: 2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가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잔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4월 6, 20일)
성모회 금요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4월 14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4월 13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제자들이 파스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사실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단의 대표인 베드로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맞으면 두 손 들어 예수님을 환호했고,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철저히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더없이 고독하고 괴로운 길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내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친구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폭력과 죽음의 문화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는 생각조차 하기 귀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주님을 배반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총의 성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 헌 금: \$366
 교 무 금: \$170
 매일미사:\$15
 합 계: \$551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3월 31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50,4-7

<제 2 독서> 필리피서 2,6-11

<수난복음> 마르코 복음 14,1-15,47 <또는 15,1-39>

회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 발을 묶었나이다. 제 뺨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 속옷놓고는제비를 뺏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복 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 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마르코 복음 11,1-10 <또는 요한 12,12-16>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 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등에서 얹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여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시작:115 봉헌:218 성체:159 파견 119:



교리

성주간의 의미

김지영 사무엘 신부(독산 1 동 성당 주임)

교회는 예수부활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하여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보냅니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시기를 살아온 신자들은 이제 장엄한 ‘성주간’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의미를 강하게 체험합니다. 성주간은 모든 전례의 꽃 중의 꽃,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Hosanna,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외치며 환호하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곧 배신으로 바뀌는 아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주간(월~수요일): 특별한 예식은 없지만 말씀의 전례는 월요일에 머지않아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를, 화요일에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배반을, 수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유다의 배반을 묵상합니다.

성삼일(목~토요일): 성목요일 주교좌성당에 모여 성유축성미사를 집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운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식사로서 ‘성체성사’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 코린 11,24)

미사 중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본받아 발 씻김 예식(세족례)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

미사 후에는 성체를 준비된 수난 감실로 옮기고 밤새워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성금요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 긴 수난기를 봉독하며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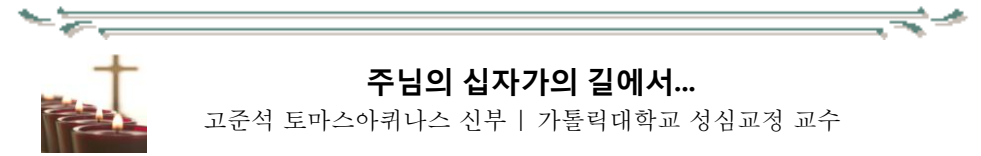
성토요일(부활성야) 밤의 예식은 모든 전례의 절정을 이루며 가장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빛의 예식’을 통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장엄하게 봉독되고 세례 갱신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환영과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성주간 전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 의 믿음도 헛됩니다.”(1 코린 15,14)

† 공지사항

1. 부활 미사 안내 - 부활 전야 미사 (4월 7일 오후 6시, Catholic Multicultural Center/1862 Beld Street, Madison/박장지나 좌회전), 부활 낮 미사(4월 8일 오후 2시)
2. 세례 성사 안내 - 4월 8일 오후 2시(St.Paul 성당)
3. 견진 성사 안내 - 4월 11일 오후 7시(St.Paul 성당)
4.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부활 전 주일을 성주간이라고 하여 거룩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주님께서 온 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러 씌어져 이미 기력이 쇠진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고 연거푸 쓰러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고통, 이러한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채찍에 맞아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살갗을 파고드는 가시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의 고통? 주님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거나 배신당하는 소외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돈 때문에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저 살기 바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잘 따랐으며 가장 잘 믿었던 제자들에게 버림 받았습시다.

또한 주님께서 받은 재판은 불의와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재판은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하고 심문은 끝나버렸고 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임금님,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은 가장 사랑 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이요, 진리를 저버리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한탄이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지켜준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지켜보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백인대장,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모신 착하고 의로운 요셉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고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주님의 십자가 수난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유다, 저살고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던 사람들, 의로운 요셉과 주님의 임종을 지켜준 여인들등등. 참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까?